

백옥같이 깨끗한 량심은 생명과 같다

2016 년 11 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으시였다.

오랜 기간 당간부양성의 최고전당에서 묵묵히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교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참으로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일군들은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같이 깨끗한 량심을 간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것을 중시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량심에 티가 앓은 당일군은 제아무리 박식하다고 하여도 당과 수령,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수 없으며 종당에는 일군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당일군에게 있어서 백옥같이 깨끗한 량심은 생명과 같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교원들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바라시는대로 모든 학생들을 키워갈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